

[TV]

TV 9월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비밀 수 있습니다.

TV 9월 방송 일정표. KBS1, KBS2, MBC, KBC/SBS, EBS 채널별 프로그램 목록. 시간대별로 정리된 방송 제목과 채널 번호를 포함.

“정상 욕심 보다는 낭떠러지 두려움 커요”

한층 가볍고 편해진 4집 '애인'으로 컴백한 가수 테이



최근 사석에서 한 유명 작곡가의 말. “소 포모에(대학 2년생) 정크스(가수의 경우 1 집은 성공해도 2집은 그 명성을 따르기 힘들다는 뜻)란 게 있잖아요. 하지만 요즘은 4집이 가수의 생명력을 좌우하는 것 같아요.” 히트 가수의 음악 스타일이 대중에게 받아들여지는 게 3집까지만 의미. “4집부터 기존 스타일을 유지하느냐, 변화를 주느냐 그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테이(본명 김효경·24)도 4집 '애인'을 내며 같은 고민을 했다. “뜬이 되고 싶다는 욕심보다 낭떠러지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튀어서 이슈가 되기보다 흥 잡힐 일이 없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온 테이는 4집에서 더 치장하고 멋부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해법은 ‘무겁게 가지 말자’ 먼저 창범이 아닌 선곡에서 힘을 썼다. 1집 ‘사랑은...항기를 남기고’, 2집 ‘사랑은...하나다’, 3집 ‘그리움을 외치다’까지는 히트곡마다 욕중했다. 선 굵은 보컬이 더해져 신경 세조의 필립과 약한 근육 경직이 수반됐다. 그러나 4집은 타이틀곡 ‘같은 베개’를 비롯해 ‘퀸(Queen)’ ‘마이 송(My Song)’ 등 대부분의 곡이 체중을 감당했다. 리듬감이 컸던 가보게 때린다. 무의적으로 흘러들어오 불분하지 않은 음반을 만들자는 의도가 적중한 셈이다. 테이는 가벼워진 곡을 편안하게 노래하는 재미를 찾았다. “왜 오늘은 노래가 잘 안될까”란 고민을 하곤 했는데 지난 해 여름 학원에서 보컬의 기본부터 새로 배운 덕택. 이 과정에서 흥성·가성·진성 등 보컬의 여러 영역을 섭렵하며 노래하는 맛을 터득했다. 힘을 빼고 여러 발성으로 테크닉을 가미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어릴 땐 김경호 모창이 가능한 얇은 미성 이었고, 변성이 났을 땐 신승훈 곡을 부르며 음색이 부드러워졌죠. 이후 스킨십을 하며 마이를 볼듯 노래를 열심히 불렀더니 굵은 톤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보컬 트레이닝을 받으며 여러 발성이 가능해 스스로 놀랐죠.” 헬스센터에서 운동을 통해 3집 때보다 체중까지 6~7kg 감량한 테이는 4월14일 서울 공원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에 나선다. 6월29일 일본 도쿄(東京), 7월1일 오사카(大阪) 단독 공연도 예정돼 있다.

LIVING TV 명찰 기행 (오전 9시50분) - 국내여행의 주요 소재인 유명사찰을 중심으로 주변 관광지 소개하는 '명찰기행'.

국제보청기 - 창업 25년, 본점 (동구청남동성당사) (062) 227-9940, 충장점 (금남공원앞) (062) 225-9970

케이블·위성TV 9월

케이블·위성TV 9월 방송 일정표. YTN, 시네마 TV, 카툰 네트워크, 코미디 TV, Xports, 퀴니, GTV, 합정 TV, EBS1, KBS Prime 등 다양한 채널의 프로그램 목록.

PBC 광주광역시방송 FM 99.9 MHz / FM 99.9 MHz

TBN 교보방송

BBS 불교방송